

擴充論解釋에 對한 研究

許萬會*·高炳熙*·宋一炳*

I. 緒 論

諸醫家들에 依하여 四象醫學에 對한 理論的 臨床的 研究가 一世紀餘에 걸쳐 進行되어왔다. 臨床的인 研究도 重要하다. 그러나 理論的 研究는 臨床的 必須先行要件이라고 著者는 생각한다. 지난 論文에서 四端論을 中心으로 한 四象本質의 形態學的 圖式化에 對한 考察을 試圖해 본 結果 그것만으로는 不充分한 點을 깨닫고, 擴充論에 對한 研究의 必要性을 認識하였다.

所以로 著者는 性命論과 四端論의 集合體인 擴充論을 明白히 밝혀서, 性情과 人體의 生理的 或은 病理的 發顯 現象과 連繫를 맺고, 그 連繫를 通하여, 前 論文인 外形의 體形氣象을 中心으로 한 客觀的인 四象體質의 形態學的 圖式化를 性情發顯 現象과 結合시킬 目的으로 本 考察을 試圖하였다.

II. 材 料

太陽人 哀性遠散而 怒情促急

哀性遠散者¹⁾ 太陽之耳 察於天時而 哀衆人之 相欺也 哀性非也³⁾ 聽也

怒性促急者²⁾ 太陽之脾 行於⁵⁾ 交遇而 怒別人 之侮己也 怒情非他⁴⁾ 怒也

1. 太陽之耳 能廣博於天時而 太陽之鼻 不能廣

博於人倫

2. 太陽之脾 能勇統於交遇而 太陽之肝 不能雅 立於黨與

3. 太陽之聽 能廣博於 天時故 太陽之神 充足 於頭腦而 歸肺者大也

太陽之嗅 不能廣博於人倫故 太陽之血 不充 足於腰脊而 歸肝者小也

4. 太陽之怒 能勇統於 交遇 故 交遇不侮也

太陽之喜 不能雅立於黨與 故黨與侮也

是故 太陽之暴怒 不在於交遇而 必在於黨與也

5. 太陽之交遇 可以怒治之而黨與 不可以怒治 之也 若遷怒於黨與也則 無益於黨與而 肝 傷也

太陽之性氣 恒欲進而 不欲退

太陽之進 量可而進也 自反其村而不莊 不能 進也

太陽之情氣 恒欲爲雄而 不欲爲雌

太陽之人 雖好爲雄 亦或宜雌 若全好爲雄則放 縱之心 必過也

太陽人 雖至愚 其性 便便然 猶延納也

雖至不肖 人之善惡 亦知之也

太陽人 謹於交遇 故 恒有交遇生疎人 慮患之 怒心 此心 出於秉彝之敬心也 莫非至 善而輕於黨與 故 每爲親熱黨與人 所 陷而 偏怒傷臟 以其擇交之 心不廢 故也

太陽之臍 宜戒伐心 太陽之臍 苦無伐心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絶世之行檢 必在此也

太陽之腎 宜戒竊心 太陽之腎 苦無竊心

大人之方略 必在此也

III. 總括 및 考察

[1] 太陽人

東武는 四端論에서

太陽人은 哀性遠散而 怒情促急하니

哀性遠散則 氣注肺而 肺益盛하고

怒情促急則 氣激肝而 肝益削한다.

太陽之 臟局이 所以成形 於 肺大肝小也라.

라고 前提하고

擴充論에서 同一主題를 놓고 다음과 같이 附言 說明하고 있다.

太陽人은 哀性遠散 而 怒情促急하니

哀性遠散者는 太陽之耳 察於天時 而 哀衆人之 相欺也니 哀性은 非也라 聽也라.

怒情促急者는 太陽之脾 行於交遇 而 怒別人之 侮己也니 怒情은 非也라 怒也라.

1) 四端論과 擴充論에서 共히 哀性遠散而 怒情促急하니 한것은 哀性이 遠散됨과 同時에 怒情이 또한 足急당하게 되는 哀性和 怒情의 同時發顯기전을 闡明한 것이다.

氣注肺而肺益盛과 太陽之耳察於天時而哀衆人之 相欺也

氣激肝而 肝益削과 太陽之脾行於交遇而怒別人之 侮己也

上記와 같이 太陽人 性情에 對한 定義의 內容이 四端論과 擴充論에서 表現을 달리하고 있으나, 그 內容은 各各 同一視 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 此를 立證해 보고자 한다.

太陽人의 定義에 對하여 考察하기로 한다.

1) 哀性이 遠散者

i) 哀 性

哀性은 天機에서 作用하는 哀性 卽 天機中 天時에서 作用하는 太陽之耳·聽에 屬하는 太陽之神의 作用을 말한다. 哀性은 非也라 聽也라 했듯이 哀性은 곧 聽이요 聽은 天時에서 廣博하면서 輕清無形之聲을 듣는 直升之哀力의 作用을 말하는 것이다.

ii) 遠散者

遠散作用에 依하여 哀性이 增大되면, 그 增大된 哀性은 哀性遠散之氣 卽 哀氣로 變換한 狀態에서 天時에서의 天機作用을 離脫하여 事務에서의 人事作用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太陽之耳 察於天時(天時에서 作用하는 太陽之哀性)而 哀衆人之 相欺也(人事에서 作用하는 遠散之氣)라고 풀어쓴 것이다.

2) 怒情이 促急者

i) 怒 情

人事에서 作用하는 怒情 卽, 人事中 交遇에서 作用하는 太陽之脾의 作用을 말한다.

怒情은 非也라 怒也라 했듯이 怒情은 怒요. 怒는 交遇에서 勇統되고 있는 橫升之怒力의 作用을 말한다.

ii) 促急者

促急作用에 依하여 怒情이 動하게 되면, 그 促急된 怒情은 暴怒로 變換한 狀態에서 正常的인 人事作用을 離脫하여 別人之臟인 黨與로 移注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것을

太陽之脾 行於交遇(人事中 交遇에서 作用하는 太陽之怒情)

而怒別人之侮己也(別人之臟인 黨與에서 侮作用을 하는 太陽之暴怒)라고

풀어쓴 것이다.

1), 2)에 對해서는 此後에 再考察 하려

한다.

2) 東武가 太陽人의 定義를 내려놓고 난 後에, 그에 對한 보충 설명을 加한 부분에 對한 考察을 하려 한다.

太陽之耳가 太陽之哀性으로 天時에서 天機作用을 할때, 太陽之脾는 太陽之怒情으로 交遇에서 人事作用을 하고 있다.

이것을,

太陽之耳 能廣博於天時而太陽之鼻 不能廣博於人倫

太陽之脾 能勇統於交遇而太陽之肝 不能雅立於黨與

라고 설명하고 있다.

왜 東武는 初頭부터 太陽之耳를 설명하는데 太陽之鼻를 對比시켰고, 太陽之脾를 설명하는데 太陽之肝을 對比시켰는가 라는 의문이 提起된다.

太陽人은 肺大肝小라는 概念을 설정하여놓고 거기에 맞추어 太陽之耳와 太陽之鼻, 太陽之脾와 太陽之肝을 對比시켜 놓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太陽之耳와 太陽之鼻는 肺大肝小로 건강부회할 수는 있다. 그러나 太陽之脾와 太陽之肝에서는 太陽人의 肺大肝小때문에 對比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東武의 論理的이고 科學的인 思考를 參考해 보더라도, 여기에는 東武 나름대로의 論理的 思考方式에 맞는 他理由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思料되는 바, 著者는 다음에서 그 理由를 考察하고자 한다.

3) 天機有四의 補註에서 東武는 兌·坎·巽·離의 四卦를 들어 天機를 太少陰陽으로 分類하였다.

一曰 地方 少陰 兌上絶(☱) 西方

二曰 人倫 太陰 坎中連(☵) 北方

三曰 世會 少陽 巽下絶(☴) 東方

四曰 天時 太陽 離虛中(☲) 南方

地方, 人倫은 兌·坎·西·北方에 該當하고 闔鎖左上하니 地有餘 天不足之方으로서 太少陰人之 上焦不足을 超來하고 視聽之力이 不及하다.

故로 東武曰 地方 卽 少陰이오, 人倫 卽 太陰이라 했다. 世會, 天時는 巽·離·東·南方에 該當하고 闔鎖右下하니 天有餘地不足之方으로서 太少陽人之 下焦不足을 超來하고 行去之力이 不及하다.

故로 東武曰 世會 卽 少陽이오, 天時 卽 太陰이라 했다. 그다음 人事有四에서 一曰居處 二曰黨與 三曰交遇 四曰 事務라하여 天機有四와 對比시켰다.

그다음 人之耳目鼻口와 人之肺脾肝腎, 我之 頤臆臍腹과 我之頭肩腰臀에 이르기까지 天機와 人事의 發展段階를 說明하였다.

此를 段階別로 分類해 보면,

第一段階에서는 天機의 大同化 運動과 人事의 各立分裂 狀態의 기틀 속에서 各各 相異하게 作用하고 있는 實體를 說明했고,

第二段階에서는 觀于天하는 耳目鼻口에 好善之心이 作用하고, 立於人하는 肺脾肝腎에 惡惡之心이 作用하고 있음을 밝혔고,

第三段階에서는 天機와 人事에 該當하는 實體들이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으로 發顯된 後, 外形을 갖추고 行動化하는 過程에서 行其知하는 頤臆臍腹에 博通(性)하러하는 驕矜代夸의 私心이 있어, 知卽性이 이루어지고, (人之 頤臆臍腹은 私心無雙也오) 行其行하는 頭肩腰臀에 正行(獨行)하러하는 奪侈懶竊之怠心이 있어 命이 行해지고 있음을 갈파했다.

(人之 頭肩腰臀은 怠心無雙也오)

耳目鼻口는 人階可以爲堯舜 이로되 頤臆臍腹

은 人階自不爲堯舜이요 肺脾肝腎은 人皆可以爲堯舜이로되 頭肩腰臀은 人皆自不爲堯舜이라 하였으니,

天機도 頷臆臍腹 段階에 와서는 大同化運動이 驕矜代夸之私心으로 까지의 變化를 나타냈고, 人事도 頭肩腰臀 段階에 와서는 各立分裂狀態가 奪侈懶竊之怠心으로 까지의 變化를 나타냈다.

東武는 다음과 같이 그 實證을 들어 周知시켰다.

人之耳目鼻口의 好善之心을 衆人의 耳目鼻口로써 論之해 보건데 衆人은 堯舜이 될 수 있는데 堯舜보다 一鞭만큼 못한 것에 不過하고, 人之肺脾肝腎의 惡惡之心을 堯舜의 肺脾肝腎이 惡惡하는 마음으로서 論之해 보건데 衆人은 堯舜보다 一少鞭만큼 못한 것 뿐인즉, 人皆可以爲堯舜者 以此니라. 人之頷臆臍腹 之中에 誣世之心이 每每隱伏해 있으니 存其心하고 養其性한 然後라야 人皆可以爲堯舜之知요. 人之頭肩腰臀之下에 罔民之心이 種種 暗藏해 있으니 修其身하고 立其命한 然後라야 人皆可以爲堯舜之行이니 人皆自不爲堯舜者 以此니라.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에 있어서는 衆人과 堯舜의 차이가 卽 天機 人事와의 차이가 아주 些少하여 모두가 堯舜이 될 수 있는데 頷臆臍腹과 頭肩腰臀에서는 誣世之心과 罔民之心이 隱伏·暗藏해 있어서 自己 스스로 堯舜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第三段階에 와서 知와 行, 性과 命이 行動化되고 있는 그 變化發展過程이 至大하므로, 存其心 養其性하고, 修其身·立其命하지 않고는 堯舜之 知·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故로 東武는 頷臆臍腹과 頭肩腰臀의 補註에서 그 變化發展過程을 상세히 밝혀 주었다.

4] 頷臆臍腹과 頭肩腰臀의 變化發展過程을 察하여 봄으로써, 그 各各의 作用上의 相異點을 밝혀보고자 한다.

1) 頷有籌策 臆有經論 臍有行檢
腹有度量

i) 頷有籌策

頷屬津海니 耳之根本而耳屬肺則 太陰人은 肺小故 耳無聽力이나 卓然 自有嗅思之才¹²니 籌策也. 卽 頷은 耳之根本으로 屬肺하여 屬太陰하고 太陰人은 肺小하여 耳無聽力이지만 卓然히 嗅思之才인 籌策이 있다 하였으니 籌策을 形成하는 根本은 肝에 있으되 그 原動力은 頷의 津海에 있다.

故로 頷과 籌策 사이에는 太陰出太陽 關係를 連繫시킬 수가 있다.

ii) 臆有經論

臆屬脊海니 目之根本而目屬脾則 少陰人은 脾小故 目無視力이나 坦然 自有味辯之才¹³니 經論也. 卽 臆은 目之根本으로 屬脾하여 屬少陽하고 少陰人은 脾小하여 目無視力이지만 坦然히 味辯之才인 經論이 있다 하였으니 經論을 形成하는 根本은 肝에 있으되, 그 原動力은 臆의 脊海에 있다.

故로 臆과 經論사이에는 少陰出少陽의 關係를 連繫시킬 수가 있다.

iii) 臍有行檢

臍屬油海니 鼻之根本而鼻屬肝則 太陽人은 肝小故 鼻無嗅力이나 便然 自有聽學之才¹⁴니 行檢也. 卽 臍는 鼻之根本으로 屬肝하여 屬太陰하고, 太陽人은 肝小하여 鼻無嗅力이지만 便然히 聽學之才인 行檢이 있다 하였으니 行檢을 形成하는 根本은 肝에 있으되, 그 原動力은 臍의 油海에 있다.

故로 臍와 行檢사이에는 太陽出太陰의 關係를 連繫시킬 수가 있다.

iv) 腹有度量

腹屬液海니 口之根本而 口屬腎則 少陽人은 腎小故 口無味力이나 依然 自有親問之才¹¹니 度量也니라. 卽 腹은 屬腎하는 故로 津變爲液하여 液海가 되고 그 液海는 또한 口之根本으로 屬腎, 屬少陰한다. 少陽人은 腎小하여 口無味力이지만 依然히 視問之才인 度量이 있다 하였으니 度量을 形成하는 根本은 腎에 있으되 그 原動力은 腹의 液海에 있다.

故로 腹과 度量사이에는 少陽出少陰의 關係를 連繫시킬 수가 있다.

此에 依하여, 天機에 該當하는 天時, 世會, 人倫, 地方에서 耳目鼻口와 頤臆臍腹에 이르러 行其知하는 과정에서 太陰太陽, 少陰出少陽 太陽出太陰, 少陽出少陰 하는 相互 關連作用이 있음을 알았다. 이것을 東武는 擴充論의 末尾에 太陰之頤, 少陰之臆, 太陽之臍, 少陽之腹을 驕心, 矜心, 伐心, 夸心과 籌策, 經論, 行檢, 度量으로 연결시켜 놓으므로써 天機가 第三段階에 이르러서는 博通하려 하는 가운데 驕矜伐夸하는 私心이 있고 誣世之心이 每每 隱伏되어 있으니 絕世之 籌策, 經論, 行檢, 度量이 있기까지는 以上과 같이 特異한 天機作用이 있음을 周知시켰다.

2) 頭有識見, 肩有威儀 腰有材幹, 臀有方略

i) 頭有識見

頭之賦海는 神之所舍也라. 神之爲氣면 光明而 鑑造化하니 自有識見이니라 則此句之論은 太陰人言而特舉少陰人言者는 盖 少陰出太陽而 奪其母神故也니라

ii) 肩有威儀

肩有膜海는 靈之所舍也라. 靈之爲氣이면 嚴肅而 酷態度하니 自有威儀니라. 則此句之論은 少陽人言而特舉太陰人言者는 盖 太陰生 少陽而假其子靈故也니라

iii) 腰有材幹

腰之血海는 魂之所舍也라. 魂之爲氣이면 顯達而 奇行裝하니 自有材幹이니라. 則此句之論은 太陰人言而特舉少陽人言者는 盖 少陽出太陰而 憑其母魂故也니라.

iv) 肩有方略

肩之精海는 魄之所舍也라. 魄之爲氣이면 盛太而 壯經營하니 自有方略이니라. 則此句之論은 少陰人言而特舉太陽人言者는 盖 太陽生少陰而 特其子魄故也니라.

人事에 該當하는 事務 交遇 黨與 居處에서 肺脾肝腎과 頭肩腰臀에 이르러 行其行하는 과정에서 少陰出太陽 太陰生少陽 少陽出太陰 太陽生少陰하면서 相互關連作用이 있음을 알았다. 이것을 東武는 擴充論 末尾에 少陰之頭, 太陰之肩, 少陽之腰, 太陽之臀은 奪心·侈心·懶心·竊心과 識見·威儀·材幹·方略으로 連結시켜 놓으므로써, 人事가 第三段階에 이르러서는 獨行하려하는 가운데 奪侈懶竊하는 怠心이 있고 罔民之心이 種種 暗藏되어 있으니 大人之 識見·威儀·材幹·方略이 있기까지는 以上과 같이 特異한 人事作用이 있음을 周知시켰다.

1), 2)에서 天機와 人事의 變遷과정중 그 各各의 作用上的 相異點을 考察하여 보았다. 問題는 第三段階에 이르러 天機의 行其知하는 性이 이루어지는 過程에서는 太陽과 太陰, 少陽과 少陰이 各各 相互 生出關係를 유지하고 있고 人事의 行其行하는 命이 行해지는 過程에서는 太陽과 少陰, 少陽과 太陰이 各各 相互 生出關係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東武는 性命論에서 段階別로 그의 理論을 展開하면서, 다른 오해가 없도록, 이 事實을 補註에서 밝혔고, 이를 토대로 하여 四端論에서 臟理大小로 起因하는 太少陰陽之人的 四象人을 創造하였다. 그 事實過程을 밝혀두기 爲하여,

頷	耳之根本而耳屬肺 太陽人 肺 小 耳無聽力 嗅思之才 籌 策 性命論	太陽	太陰
太陰之頷 宜戒驕心 太陰之頷 苦無驕心 絕世之籌策 必在此也 擴充論			
臆	目之根本而目屬脾 少陰人 脾 小 目無視力 味辨之才 經 論 性命論	少陽	少陰
少陰之臆 宜戒矜心 少陰之臆 苦無矜心 絕世之經論 必在此也 擴充論			
臍	鼻之根本而鼻屬肝 太陽人 肝 大 鼻無嗅力 聽學之才 行 檢 性命論	太陰	太陽
太陽之臍 宜戒伐心 太陽之臍 苦無伐心 絕世之行檢 必在此也 擴充論			
腹	口之根本而口屬腎 少陽人 腎 小 口無味力 視問之才 度 量 性命論	少陰	少陽
少陽之腹 宜戒夸心 少陽之腹 苦無夸心 絕世之度量 必在此也 擴充論			

第一圖 頷臆臍腹斗 行其知

頭	髓 海 神之所舍 神之爲氣 光明而鑑造化 識 見 性命論	太陽	少陰出太陽 而 少陰	奪其母神故也
少陰之頭 宜戒奪心 少陰之頭 苦無奪心 大人之識見 必在此也 擴充論				
肩	膜 海 靈之所舍 靈之爲氣 嚴肅而酷態度 威 儀 性命論	少陽	太陰出少陽 而 太陰	假其子靈故也
太陰之肩 宜戒侈心 太陰之肩 苦無侈心 大人之威儀 必在此也 擴充論				
腰	血 海 魂之所舍 魂之爲氣 顯達而奇行裝 材 幹 性命論	太陰	少陽出太陰 而 少陽	憑其母魂故也
少陽之腰 宜戒懶心 少陽之腰 苦無懶心 大人之材幹 必在此也 擴充論				
臀	精 海 魄之所舍 魄之爲氣 盛太而壯經營 方 略 性命論	少陽	太陽生少陰 而 太陽	特其子魄故也
太陽之臀 宜戒竊心 太陽之臀 故無竊心 大人之方略 必在此也 擴充論				

第二圖 頭肩腰臀斗 行其行

天機作用의 第三段階를 太陰之頷, 少飲之臆, 太陽之臍, 少陽之腹으로 表現했고, 人事作用의 第三段階를 少陰之頭, 太陰之肩, 少陽之腰, 太陽之臀으로 表現 정리하면서 擴充論을 끝 맺었다.

5] 太陽人の 解說中

太陽之耳能廣博於天時而太陽之鼻不能廣博於人倫이라고 했는데 天機에서는 太陰出太陽의 關係를 維持하고 있다는 사실을 頷臆臍腹의 補註에서 考察한 바와같이, 太陽之耳¹⁾와 太陽之鼻²⁾를 對比시켜 論한 것은 當然하다.

1) 太陽人の 경우에는

太陰이 太陽에서 出하고 있는 關係上, 陽性傾向에 屬하고 있는 太陽之耳는 天時에서 能히 廣博하고, 陰性傾向에 屬하고 있는 太陽之鼻는 人倫에서 不能廣博한다.

· 太陽之耳가 能廣博於天時하고 있는 故로 太陽之聽도 天時輕清無形之聲을 聽하는 太陽之哀性으로써 역시 能廣博於天時하게 되므로 屬頷하는 津海之清氣가 出于耳而爲神하는 太陽之神은 入於頭腦而爲賦海하니, 賦海之賦汁清者는 內歸於肺하게 되는데 (氣注肺), 太陽人の 경우는, 充足於頭腦하고 있으므로, 歸肺하고 있는 太陽之神, 즉, 直升之哀力은 大하게 된다.

· 太陽之鼻가 不能廣博於人倫하고 있는 故로 太陽之嗅도 人倫沈靜無跡之像을 嗅하는 太陽之喜性으로써 역시 不能廣博於人倫하게 되므로, 屬臍하는 油海之清氣가 出于鼻而爲血하는 太陽之血은 入於腰脊而爲血海하니, 血海之血汁清者는 內歸于肝하게 되는데, 太陽人の 경우는 不充足於腰脊하고 있으므로 歸肝하고 있는 太陽之血, 즉, 放降之喜力은 小하게 되어 不能雅立於黨與가 된다. 此는 天機에서 作用하고 있는 太陽人の 臟理屬性이다.

此에서 注意할 것은

太陽之耳와 鼻가 天機에서 太陽之聽과 嗅로 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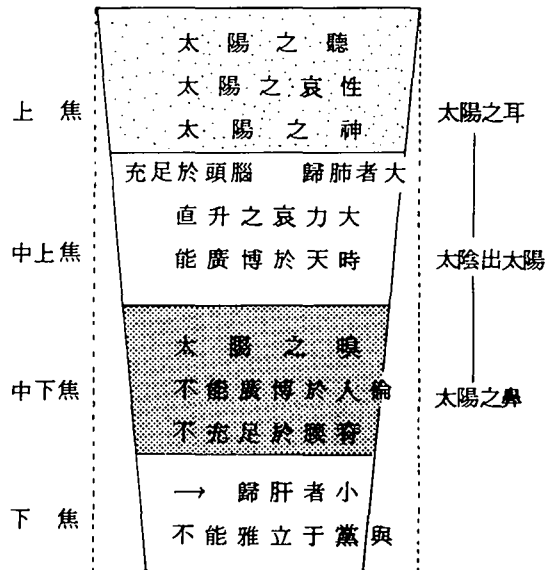
用할때에 發生하는 太陽之神과 血이 天機作用下에서 歸肺, 歸肝하는 정도의 大小를 稱하는 것이지, 此로써 太陽人の 肺大肝小를 結定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點이다. 或者는 此로써 太陽人の 肺大肝小를 結定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東武의 意圖가 아닌 것으로 思料된다. 此는 天機作用下에서 太陽人이라는 特定人の 臟理에 나타나는 太陽之神과 血의 分布狀態를 指稱하고자 한 것이다. 다음은, 上記한 事實에 對하여 四端論에 있는 東武의 意圖이다.

太少陰陽之 臟局短長은 陰陽之變化也니

天稟之已定은 固無可論이어나와

天稟之已定之外에 又有短長而 不全其天稟者는 則人事之修 不修而命之傾也니 不可不慎也라.

라고 說한 中에서 擴充論의 “歸肺者大也, 歸肝者小也”는 바로 이 天稟之已定에 論하여 論한 것이라 思料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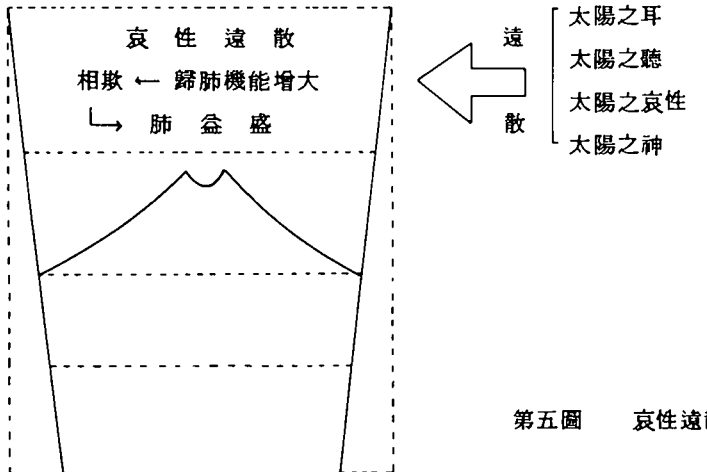
第三圖 天稟之已定

太陽 之聽	頷	津海	清氣 耳	太陽 之神	入于 頭腦	肺	充足於 頭腦	歸肺者 大
太陽 之嗅	臍	油海	清氣 鼻	太陽 之血	入于 腰脊	肝	充足於 腰脊	歸肝者 小

第四圖 太陽之聽과 嗅에서 歸肺·歸肝까지의 過程

2) 衰性이 遠散者를 再考察해 보기로한다.
 太陽之耳·太陽之聽·太陽之神 卽 太陽之衰
 性이 天時에서 天機作用¹⁾을 할 때에는 (太陽
 之耳察於天時), 歸肺機能이 正常的으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氣注肺 역시 正常이다. 그러
 나 일단 遠散作用이 일어나면, 그 增大된 直升
 之衰氣가 天時에서 事務²⁾로 大移動을 하게됨
 에, 歸肺機能(氣注肺機能)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以其直升之衰力으로 能達事務之欺하여 정상적
 인 克修作用이 이루어지고 있던 衆人之臟인 肺
 에 事務之欺의 機能增大가 일어나 相欺現像에
 이르게 된다. 此 相欺現像이 곧 肺益盛 現像을
 稱하는 것이다. 이것을 東武는 “而衰衆人之
 相欺也”로 壓縮하여 표현했다. 所以로 氣注肺
 而 肺益盛과 太陽之耳察於天時而衰衆人之 相欺
 也가 同一概念임을 立證하였다.



第五圖 衰性遠散者

3) 衰怒는 相成하고 있으므로
 衰性이 極則怒情이 動한다.
 太陽人의 경우에 怒情이 動하는 過程을 東

武는 다음과 같이 說하고 있다.

太陽之脾는 能勇統於 交遇而 太陽之肝은 不
 能雅立於黨與라.

人事에서 怒情이 動할 때에는, 頭肩腰臀의 補註에서 考察해본 바와 같이, 少陽과 太陰이 相互生出關係를 維持하고 있으므로, 太陽之脾와 太陽之肝을 相互 對比시켰다.

太陽人은 陽人이므로, 太陽之脾는 陽性 傾向에 屬하는 臟腑인 故로 能勇統於 交遇하고, 太陽之肝은 陰性傾向에 屬하는 臟腑인 故로 不能 雅立於 黨與가 된다. 故로 交遇에서 能히 勇統하고 있는 太陽之怒는 以其橫升之怒力으로 能合交遇之侮하고 있으므로, 太陽의 交遇 自體內에서는 侮作用이 일어나지 않는다.

(太陽之怒 能勇統於 交遇 故 交遇不侮也)

그러나 黨與에서 不能雅立하고 있는 太陽之喜는 以其放降之 喜力으로 能立黨與之助를 못하게 되므로 당연히 黨與에서 交遇의 侮作用이 일어나게 된다.

此는 人事에서 作用하고 있는 太陽人의 臟理 屬性이다.

4) 怒情이 促急者를 再考察해 보기로 한다.

太陽之脾 太陽之怒가 交遇에서 人事作用, 即 克成作用을 할 때에는(太陽之脾 能勇統於交遇), 歸肝機能이 正常的으로 이루어져 氣注肝하다가, 일단 促急現象이 일어나면, 交遇에서 勇統하고 있는 橫升之怒力인 太陽之怒가

太陽之暴怒로 變하여, 衆人之臟인 脾에서 別人之臟인 肝, 即 黨與로 注하여 暴怒作用을 하게 되니 氣激肝이 된다.

故로 東武가 太陽之暴怒 不在於交遇而 必在於黨與也라 說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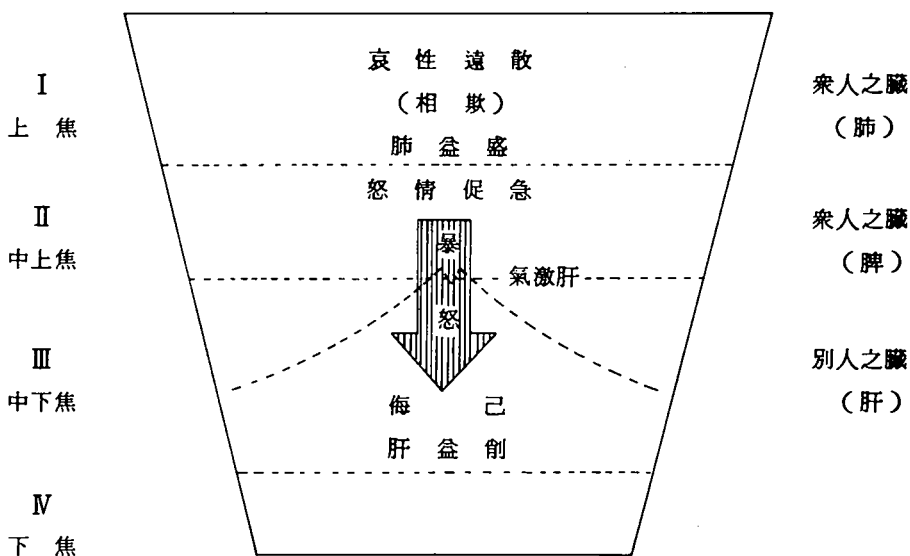
衆人之臟인 脾에서 別人之臟인 肝으로 注한 太陽之暴怒는 侮作用을 통하여 激肝作用을 하게 되는데, 侮作用이 계속되면, 別人之臟이 侮己狀態에까지 이르게 된다. 故로 肝益削하게 되는 것이다.

· 太陽之交遇는 可以怒治之而 黨與는 不可以怒治之也 太陽之暴怒가 交遇에서는 治之되지만 黨與로 옮겨가게되면 不可以治之되므로 暴怒之氣는 激肝作用을 하게되는 것이다.

· 若遷怒於 黨與則 無益於黨與而 肝傷也라. 黨與로 옮겨진 太陽之暴怒가 激肝作用을 하여 黨與에게 無益하게 되고, 激肝作用이 계속된즉, 肝益削하여 肝傷에까지 이른다. 此를 東武는 “而怒別人之侮己也”라 壓縮하여 표현했다.

所以로 氣激肝而肝益削과 太陽之脾行於交遇而怒則人之侮己也가 서로 同一概念임을 立證하였다.

以上에서 太陽人은 肺大肝小의 臟局을 形成하게 된다.



第六圖 怒情促急者

6] 太陽人の 性氣와 情氣에 對하여 考察한다.

1) 太陽之性氣는 恒欲進而不欲退한다.

著者는 太陽之性氣를 太陽之性과 太陽之性氣로 區分해 보아야 한다고 본다.

太陽之性은 哀性으로 太陽之耳察於天時 할때의 그것이고, 太陽之性氣는 哀性이 遠散되어氣化된 哀性遠散之氣 卽 肺氣를 지칭한다. 故로 哀性之氣는 直升하고 肺氣는 直而伸하니, 太陽之性氣는 恒欲進而不欲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太陽의 進은 量可而進 해야 한다. 自反其材而不莊이면 不能進이라 하여 中庸之進을 擇할 것을 강조하였다.

2) 太陽之情氣는 恒欲爲雄而不欲爲雌한다.

太陽之情과 太陽之情氣로 區分해 보면, 太陽之情은 太陽之脾行於交遇할때의 怒情이다. 이것은 促急作用때문에 無力하여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太陽之情氣는 怒情이 促急되어 氣化된 怒情促急之氣 卽 太陽之暴怒之氣를 指稱한다. 이것은 無力한 怒情과는 달리 영향력이 강한 暴氣에 屬한다. 故로 이 暴怒之氣는 不在於交遇而必在於黨與한다. 이 暴怒之氣는 陽性경향에 屬하는 交遇를 離脫하여 陰性 경향에 屬하는 黨與로 注한다. 그리고 小陽(少陽이 아님)에 屬하는 暴怒이지만, 怒千萬人할 정도로 난폭하여, 黨與의 大陰(大陰이 아님)屬에서 그 亂暴한 氣勢를 떨치는 것을 볼때, 亂暴한 숫물개가 많은 암물개 속으로 注하는 것과 같으니, 이를 雄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故로 恒欲爲雄而不欲爲雌라 표현한 것으로 思料된다. 그러나 太陽之人은 비록 好爲雄이지만 역시 宜雄함직도 한데, 만약 全好爲雄則 乘禮而放恣之心이 必過할 터이니 太陽人이 哀極不濟則念怒激外함과 相通한다.

7] 太陽人은 雖至愚나 其性은 便便然하여

猶延納也라. 雖至不肖라도 人之善惡을 亦

知之也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雖至不肖의 해석에 있다. 李¹⁾, 韓²⁾, 朴³⁾ 모두 雖至愚를 「비록 지극히 어리석더라도」 「비록 至極히 어리석은 것 같아도」로 해석했고, 雖至不肖를 「비록 지극히 못났더라도」, 「비록 不肖한 것 같아도」로 해석했다.

著者는 이러한 解釋은 東武의 意圖와 附合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東武는 性命論에서 天機와 人事에 對하여 三段階에 걸쳐 理論을 展開해 가면서, 耳目鼻口와 頷臆膺腹, 肺脾肝腎과 頭肩腰臀을 最終의 壓縮시켜 表現한 부분이 있다.

耳目鼻口는 人皆知也오. 頷臆膺腹은 人皆愚也오.

肺脾肝腎은 人皆賢也오. 頭肩腰臀은 人皆不肖也니라.

라고 定義를 내린 後, 그렇게 되는 理由를 說明하고 있다.

人之耳目鼻口는 天也니 天은 知也오.

人之肺脾肝腎은 人也니 人은 賢也오.

我之頷臆膺腹은 我自爲心而未免愚也니

我之免愚는 在我也오

我之頭肩腰臀은 我自爲身而 未免不肖也니.

我之免不肖는 在我也니라.

此로써 미루어 볼때, 著者는 雖至愚를 「비록 頷臆膺腹의 私心の 段階에 至하고 있더라도」로, 雖至不肖를 「비록 頭肩腰臀의 怠心の 段階에 至하고 있더라도」로 해석하는게 東武의 意圖에 附合되는 것이라 思料된다.

[解釋] 太陽人은 비록 頷臆膺腹의 私心の 段階에 至하고 있어서 太陽之膺의 伐心이 作用할 수도 있으나, 其性品이 便便然하여 오히려 伐心 代身에 사람을 맞아들이는 延納之心이 있다. 비록 頭肩腰臀의 怠心の 段階에 至하고 있

어서 太陽之腎의 竊心이 作用할 수도 있으나 사람들의 好善之心과 惡惡之心을 分別할 줄 안다.

8) 太陽人謹於交遇 故 恒有交遇生疎人 憂患之怒心, 此心出於秉彝之敬心也 莫非至善而 輕於黨與 故 每爲親熟黨與人 所陷而 偏怒傷臟. 以其擇交之心不廣故也.

[考 察]

1) 太陽人 謹於交遇

- i) 太陽人은 有暴怒深哀하니 不可不戒라.
- ii) 太陽人은 哀極不濟則 念怒激外하니, 不可不知也라.
- iii) 太陽人怒는 以一人之怒而怒千萬人 하니 其怒는 無術於 千萬人則 必難堪 千萬人也오.

[解 說]

i) 太陽人의 哀性遠散之氣가 深하면 할수록 暴怒之氣 또한 暴해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不能雅立於黨與하고 있는 太陽之肝은 激肝되어 더욱 肝益削하게 될 것이다. 故로 不可不戒라한 것이다.

ii) 哀極之氣가 不濟된則 念怒之氣化된 暴怒之氣가 激外하게 되어, 卽 激肝作用을 惹起시키게 되니 不可不知라.

iii) 太陽人의 暴怒之氣는 一人之怒로써 千萬人을 怒하게 할 정도로 暴한 것이니 千萬人에게 術策이 없으면 반드시 千萬人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iv) 上記 3 가지 例에서 哀怒相成하는 관계와 暴怒之氣의 機能과 作用을 例證해 주었다. 특히 哀性遠散之氣보다 怒情促急 暴怒之氣를 警戒하였다. 故로 太陽人은 暴怒之氣의 根源이 交遇에 있으니 謹於交遇할 수 밖에 없었다.

2) 故恒有交遇生疎人 慮患之怒心이로되

[考 察]

- i) 大湯之怒情은 太陽之脾에서 出하고 行

於交遇한다. 太陽之情氣는 恒欲爲雄而不欲爲雌하는 故로 交遇에는 雄의 屬性이 있고, 雄의 屬性은 生疎人을 慮患하는 怒心이다.

ii) 生疎人이라는 것은 生疎한 사람도 되겠지만, 廣意로 볼때에, 生疎한 事物도 포함시킬 수 있다. 故로 生疎한 것, 새로운 관심과 興味를 惹起시키는 것, 生疎한 變化 등도 의미할 수 있다.

[解 釋]

故로 交遇에 內在하고 있는 雄의 屬性으로 因하여 生疎人을 慮患하는 怒心이 恒常이다.

3) 此心은 出於秉彝之敬心也라.

· 此心은 항상 떳떳하게 지니고 있는 敬心에서 나온다.

4) 莫非至善而 輕於黨與故로

아무리 最善을 다하여 잘 하려해도 黨與에 미치는 힘이 輕한 故로¹⁾

5) 每爲親熟黨與人所陷

[考 察]

i) 黨與에는 雌의 屬性이 있다.

ii) 雌의 屬性은 屬陰하므로 親熟人을 擇交하는 機能을 內在한다.

iii) 親熟人이라는 것은 親熟한 사람도 되겠지만, 廣意로 볼때, 親熟한 事物도 포함할 수 있다. 故로 親熟한 것 잘 알고 있는 것, 잘 아는 것, 變化를 싫어하는 것, 卽 親分關係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과 事物을 의미할 수 있다.

iv) 擇交: 相互交際가 있어 親分關係가 있고, 잘 알고 있는 것만 가려서 選擇하는 것이다.

[解 釋]

(雄의 屬性을 지닌 暴怒之氣가) 일상(雌의 屬性을 지닌) 親熟한 黨與人에게 陷하는 바를 한다.¹⁾ 즉 下降한다.

6) 而偏怒傷臟하니

그리하여 偏怒(暴怒)之氣가 黨與에서

激肝作用을 하여 傷臟(傷肝)하나니²⁾

7) 以其擇交之心이 不廣故也니라

[考 察]

i) 黨與에는 本來 喜性이 廣張하고 있다.

ii) 黨與에는 雌의 屬性이 있어 親熟의 屬性을 內在한다.

iii) 擇交之心은 黨與親熟人の 喜心이다.

iv) 喜心은 黨與에서 廣張하고 있는 喜性之心이다.

v) 故로 擇交之心은 喜性之心을 의미한다.

[解 釋] 그것은 喜性之心이 廣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9) 1) 太陽之臍는 宜戒伐心이니 太陽之臍에 惹無伐心이면 絕世之行檢이 必在此也니라.

[解 釋] 太陽之臍는 마땅히 伐心을 警戒해야 하는 것이니 太陽之臍에 만일 伐心이 없으면 絕世之行檢이 반드시 此에 內在한다.

2) 太陽之腎은 宜戒竊心이니 太陽之腎에 若無竊心이면 大人之方略이 必在此也니라.

[解 釋] 太陽之腎은 마땅히 竊心을 警戒해야 하는 것이니 太陽之腎에 만일 竊心이 없으면 大人의 方略이 반드시 此에 內在한다.

此를 擴充論 末尾에 둔 것을 중차대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思料된다.

此는 行其知하고 行其行하는 行動體요. 性과 命을 이루고 行하는 結定體요. 天機· 人事의 뜻을 頷臆臍腹과 頭肩腰腎에 와서 實現시키려고 하는 實現體이다. 故로 지금까지의 모든 理論의 根幹이 되었고 또한 結論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IV. 結 論

以上에서 擴充論의 內容을 中心으로 太陽人

에 對하여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天機作用을 天機有四, 耳目鼻口, 頷臆臍腹의 三段階로 分類하여 볼때, 天機는 第三段階에 至하여, 行其知하며, 其性を 이룬다.

此 第三段階 天機作用에서는, 太陽과 太陰, 少陽과 少陰이 相互生·出關係를 維持하면서, 行其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人事作用을 人事有四, 肺脾肝腎, 頭肩腰腎의 三段階로 分類하여 볼 때, 人事는 第三段階에 至하여, 行其行하며, 其命을 行한다.

此 第三段階 人事作用에서는, 太陽과 少陰, 少陽과 太陰이 相互生·出關係를 維持하면서, 行其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太陽人 哀性遠散而 怒情促急에 對하여, 四端論과 擴充論에서 東武가 說한 四象人의 定義를 同一概念으로 간주하여 立證, 考察한 結果, 다음 圖表와 같이 分類해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圖表後面)

3. 上記(2)의 圖表를 著者의 第一期 論文의 形態學的 圖式化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圖式化해본 결과, 다음과 같았다.

太陽人은 陽人이므로 上實下虛하여 圖表化 같이 부채꼴의 형상을 유지한다.

上焦에서 哀性이 最大로 遠散하므로 肺益盛하여 (I)과 같고(大胸筋發達), 中上焦에서는 怒情이 促急당한 영향으로(II)와 같이 되고 中下焦에서는 促急作用時 交遇에서 發生한 暴怒之氣의 作用으로 肝益削하여(III)과 같고, 下焦에서는 上焦之氣多則 下焦弱의 原理와 少陰出太陽하는 關係때문에 深確之氣가 最弱하므로 (IV)와 같다.

太陽人の性情發顯

定 義		哀 性 遠 散 而 怒 情 促 急					
太 陽	四端論	氣 注 肺	氣 注 肺 作用 增大	肺 益 盛	氣 注 肺	氣 激 肝	肝 益 削
	擴 充 論	哀 性	遠 散 時	遠 散 後	怒 情	促 急 時	促 急 後
		太 陽 之 耳 察 於 天 時	而 哀 衆 人 之	相 欺 也	太 陽 之 脾 行 於 交 遇	而 怒 別 人 之	悔 己 也
解 釋	天 機 作 用	人 事 作 用	→	人 事 作 用	促 急 作 用	→	
人		太 陽 之 哀 性 이 天 機 中 正 常 作 用 으 로 天 時 를 察 함	遠 散 되 어 增 大 된 哀 氣 가 衆 人 之 臟 인 肺 로 가 서	欺 現 像 을 일 으 킴 : 肺 氣 가 增 大 되 어 益 盛 한 狀 態	太 陽 之 怒 情 이 交 遇 中 正 常 作 用	促 急 時 怒 情 은 暴 怒 로 變 하 여 黨 與 로 注 하 여 激 肝 作 用	激 肝 作 用 이 계 속 되 면, 黨 與 가 自 力 을 상 실 하 여 欺 己 現 像 을 일 으 킴

兩肩胛骨 及 鎖骨下端部

V. 參 考 文 獻

(I)
上 焦

哀 性 遠 散

肺 益 盛

(II)
中 上 焦

怒 情 促 急

暴 怒 發 生

(III)
中 下 焦

暴 怒 移 注 於 黨 與

而 肝 益 削

(IV)
下 焦

少 陰 出 太 陽

兩 陽 骨 棘 上

1. 韓大錫：東醫壽世保元譯釋（서울, 誠理會 出版社, 1967）.
2. 李之浩・洪淳用：四象醫學原論（서울, 壽文社, 1973）.
3. 朴爽彥：東醫四象大典, 서울, 醫道韓國社, 1977.